

Voice Outcome After Laser Cordectomy vs. Radiation Therapy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남 순 열

현재 조기 성문암에 주된 치료는 레이저 성대절제술과 방사선 치료이며, 종양학적인 치료 결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치료 후의 음성의 질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들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제를 통하여 레이저 성대절제술과 방사선 치료 후의 음성의 보존 결과를 비교하여 조기 성문암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치료 후의 객관적인 음성 평가인 음향 분석(acoustic analysis)과 공기 역학검사(aerodynamic study)를 시행하여 발표한 연구 결과들 중 그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에서는 대체로 fundamental frequency 또는 mean airflow rate가 성대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대조군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집단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GRABS scale을 이용한 청각심리검사법(perceptual analysis)에서는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R(roughness)과 B(breathy) 항목에서 더 나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주관적이

지만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음성을 사용하고 환자의 느낌이 중요시한 음성장애지수(voice handicap index)를 이용하여 발표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네 부분 중 세 부분인 기능적, 신체적, 감정적인 부분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 군에서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레이저 성대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두 가지 치료법 모두 낮은 점수를 보여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레이저 성대 절제술에서는 절제 범위에 따라 음성의 질이 달라지며, 가장 보존적인 방법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I, II형 절제술의 경우 기능적으로 적합한 음성장애지수를 보였으며 후두 스트로보 검사에서도 수술 후 성대의 모습과 폐쇄, 보상 기전이 적합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레이저 성대 절제술과 방사선치료 모두 조기 성문암의 치료 후 적합한 음성의 질을 보존할 수 방법으로, 특히 레이저 성대 절제술의 경우는 적합한 병기 설정을 통한 절제범위를 최소화 하여 수술 후 더 좋은 음성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